

# 미와 심

2025 통권 Vol.139



# 해냄미래대학과 만든 미래 심녕진 작가 인터뷰

해냄미래대학 디자인학과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구축해온 심녕진 작가가,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에 선정되어 전시회와 멘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 표지에서는 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작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시간만 되면 괜히 설레고, 색칠을 하거나 뭔가를 표현하는 게 참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그림을 그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림을 좋아했었지'라는 기억조차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처음부터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해냄미래대학 디자인학과가 생기고 함께 농구장을 뛰던 친구들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도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첫 수업에서 오랜만에 물감 냄새를 맡고 붓을 들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뭘 그리지?' 하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차츰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그림에는  
선인장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선인장이 참 멋있어보였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표지로 선보이게 된 작품 <멕시코>는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가 멕시코의  
사막 풍경과 그 안의 선인장들을 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나도 언젠가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누군가 제 그림을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더 천천히, 더 진심을 담아서요.  
선인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세게 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제 작품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by. 고민기 사회복지사

# 외와샘

2025년 vol.139호

## 목/지/관/미/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실현

[외와샘] 2025년 통권 139호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엄정호  
발행월 2025. 7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27  
전 화 033)255-2491  
팩 스 033)255-2494  
이메일 kwrc01@rehab.or.kr  
홈페이지 www.rehab.or.kr  
편 집 편집위원회  
고민기, 민찬아, 석현아, 연하현,  
이성윤, 이재길, 이진희, 장성영,  
조연화  
디자인&인쇄 (주)아이비스퀘어

인스타그램 계정  
**@kwrehab228**  
복지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보세요!  
복지관의 따뜻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2 해냄미래대학과 만든 미래, 심녕진 작가 인터뷰
- 03 목차
- 04 성장, 스스로 서기를 위한 꾸준한 도전
- 06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공감대 만들기 '독서챌린지'
- 08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왕빛나 님 독립 이야기'
- 10 늘 반가운 새로운 배움, 양구해냄 원데이클래스
- 12 함께하기에 더욱 풍성한 캠프
- 14 장애어르신 행복!, 틈새이음
- 16 4~6월 다시보기, 7~9월 미리보기
- 18 나눔, 더불어 행복한 세상 - 동행의 시작
- 19 나눔, 더불어 행복한 세상 - 4~6월 신규후원자, 자원활동가

\* 외와샘의 글,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였습니다.

# 성장, 스스로 서기를 위한 꾸준한 도전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의 생애주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훈련 그룹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훈련 그룹활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1회, 1시간 40분 동안 실생활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인식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실행하는 경험의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립훈련 그룹활동에서는 금전 관리, 세탁, 조리, 건강관리, 길찾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월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훈련은 직업 활동에 대한 기초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매, 용돈 기입장 작성, 활동 내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이후 직업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일'이라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흥미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립훈련은 복지관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 내 편의점, 반찬가게, 세탁소, 약국 등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직접 활동해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차곡 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립훈련 그룹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에게는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립훈련 과제를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된 생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가정이 함께 참여자를 지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의미 있는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립훈련은 혼자서 하려고 배우는 수업이에요. 혼자서 하나하나 하는게 재미있고, 자립훈련은 여러 가지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다보니 가끔가다 혼자하고 싶은 것도 생각 나는거 같아요. 복잡도 하고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체험하는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근원

“자립훈련 1년차, 6개월의 변화  
곧 잘 따라하는 아이를 보며 그 동안 왜 집안일을 수민이랑 함께하지 못했을까, 시간이나 효율을 따져 수민이를 제외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자립훈련을 통해 빨래요정이 된 수민이는 씻고 나서 세탁물을 분류, 세탁기 작동은 물론 이제 건조기까지 사용하고, 양말 등 간단한 것들은 건조대에 널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개어진 옷을 오빠 옷은 오빠방 옷장 선반에 올려두고, 수민이 옷은 수민이 옷장 해당 칸에 넣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능숙하게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찌개가 끓고 있으면 냄비받침을 가져다 식탁에 놓고, 씩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엄마가 설거지한 그릇을 받아 식기건조대에 정리하는 것도 제법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향상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까지 함께 하며 부모에게는 용기를, 가정에는 생기를 더하는 자립훈련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를 기대해 봅니다.” - 김수민 / 김지영

“자립훈련 그룹활동 하면서 배운 적 없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해요. 이마트 편의점, 롯데마트, 한강라면 할 때는 즐거웠던 마음이에요. 친구들과 티니핑 피규어 정리하는 거 같은 집안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자립은 동식물, 전 세계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반려동물 돌보는거, 야생동물 보살피는거 하고 싶어요.” - 오우주

by. 조연화 작업치료사

2025 장애인인권캠페인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공감대 만들기, 2025 독서챌린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공감대 만들기, 2025 독서챌린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독서라는 활동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각자의 일상 속에서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챌린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번의 캠페인을 통해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 김예원 글',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글',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글'이라는 도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읽고 장애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4월, 6월에 두 번의 캠페인이 진행되어, '행운이 구르는 속도/ 김성운 글',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더글라스 케네디 글', '착한 아이 안할래!/ 김효진 글'이라는 세 권의 도서를 함께 읽었고, 앞으로도 9월, 11월에 두 번의 캠페인이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독서챌린지는, 지역사회 누구나 장애인권에 대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생각을 서로 나누는 유익한 문화적 경험 공유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 인식에 대한 공감과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독서챌린지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공동체 역량도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주인공의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라는 이 글귀처럼 나 자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는 내내 자녀와 함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님 / 2025년 1차 독서챌린지 '행운이 구르는 속도' 참여자
- “산책을 듣는 시간은 신체적 제약을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이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장애를 단순히 한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과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여정의 일부로 풀어내며 주인공의 용기와 작가의 진정성이 읽는 이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정0현님 / 2024년 독서챌린지 '산책을 듣는 시간' 참여자
- “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 책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 엄마와 함께 읽었습니다. 라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따뜻한 말을 전래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호님 / 2024년 독서챌린지 '선량한 차별주의자' 참여자

## 독서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

🔍 캠페인 진행 기간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캠페인 참여 공지를 보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캠페인 진행 기간과 지정도서를 확인하고,

- ① 지정도서를 읽은 후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간략한 감상평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 ② 독서 후 가장 인상 깊은 책 속 문장과 추천 사유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독서 인증자료 제출방법**은, 복지관 카카오톡채널 대화창으로 보내기, 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지정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독서챌린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by. 신지영 사회복지사

# 내 삶의 주인으로, 반짝 반짝 왕빛나님의 독립이야기



가끔은 인생이 숨 가쁘게 흘러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 앞에 멈춰 서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빛나 님 역시 그런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속초로 이사를 결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하셨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도, 머물 집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나 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수있다!

가자  
꿈을 향해!

응원할게!



하이팅!!!

## # 자립을 위한 용기

2024년 겨울, 빛나 님께서는 속초분관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하고 싶어요. 이제 속초에 살기로 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빛나 님은 춘천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속초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신 상태였습니다.  
속초에 막 정착하셨을 무렵, 빛나 님은 남자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빛나 님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속에서, 오히려 누군가의 배려에만 기대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고, 그렇게 빛나 님은 자립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과 함께 직장을 알아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고, 신용카드와 통신비 채무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직접 복지관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 # 혼자 아니기에, 다시 걸어가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환경은 쉽지 않았고, 지칠 때면 “살기 싫어요...”라고 눈물 지으며 상담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빛나 님에게 단순한 지원기관이 아닌,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이어가며 독립을 준비했고,  
2025년 4월 30일, 마침내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빛나 님은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며 천천히 집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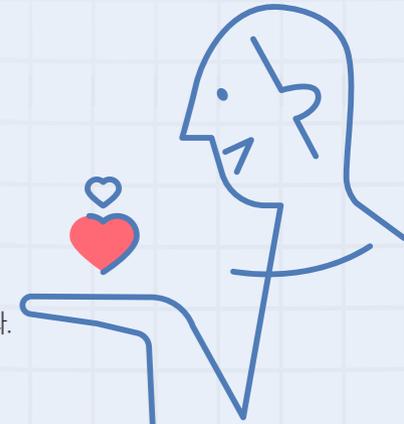
## # 나를 믿고, 내 삶을 선택하기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매달 내야 할 월세, 새로운 직장 적응, 왼쪽 눈의 건강 문제까지...  
빛나 님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나 님은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나아가 수 있다는 것을  
이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표-고  
잘될거야~!

##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빛나 님의 독립은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했고, ‘다시’라는 말이 희망이 되었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함께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오늘도 빛나 님을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합니다.



by. 이성윤 사회복지사

# 양구군지역사회중심지원센터 "소외지역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하루"

양구군지역사회중심지원센터에서는 양구군 내 장애인의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 '양구해냄평생대학'을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구읍에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외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외곽지역 장애인분들께서도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 즐겁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 동면과 방산면을 찾아가, 지역 장애인들께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면면사무소와 방산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원데이클래스에서는 동면과 해안면 주민분들은 냅킨아트와 다육아트 수업으로 방산면 주민분들은 타일아트와 다육아트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서툴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정성껏 완성해주셨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직접 가져가실 수 있어, 체험의 즐거움에 더해 작은 선물 같은 기쁨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양구해냄평생대학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 진행



"활동을 참여 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먼 곳까지 직접 와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활동을 배울 기회가 적는데 하루에 2가지 활동을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난생처음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완성하고 나니 너무 예뻐서 오래도록 잘 보관하고 싶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불러주세요. 저희 모두 꼭 참여해서 함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와보니 주변 환경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함께해주신 참여자 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해맑으셔서 수업 내내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만든 작품도 소중한 간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데이클래스 강사 공순옥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시종일관 따뜻한 정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의미 있는 하루였으며,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참여가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구해냄평생대학은 양구 지역의 모든 장애인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하고, 보다 풍요로운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by. 석현아 사회복지사

# 함께하기에 더욱 풍성한 캠프



5월, 새라새주간보호소에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나눔의 숲 캠프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부모님, 형제, 보호자 등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함께하는 이용자분들도 반갑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내 옆자리에 앉은 가족들을 보며 어느 때 보다 즐겁게 기대하며 출발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지 비소식에 한 걱정이 무색하게 맑은 날씨도 반겨주었습니다.

이동하며 함께 불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자연 카페로 출발하여 함께 사진 찍고 여유를 즐겼습니다.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되는 나눔의 숲 캠프 참여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리며 숲해설가 선생님과 다스림 숲 산책도 하고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소리에 자연에서의 휴식이 이용자 가정의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주었습니다.



새라새주간보호소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이야기



그렇게 찾아온 저녁,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가족과 함께, 동료 이용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소리지르며 새라새주간보호소와, 가족과 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기에 낯선 공간이지만 편안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에는 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되는 물 속 운동과 수압마사지도 받았습니다.

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올해부터 수영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따뜻한 수영장을 마음껏 누비며 놀고 수압 마사지도 놀이처럼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풍성하고 즐거웠던 특별한 캠프!  
일상의 많은 시간을 새라새주간보호소에서 보내는 이용자분들을 위해 직원들이 고민하며 준비한 올해의 특별한 캠프가 가정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았길 바라봅니다.

by. 민찬아 사회복지사



# 장애어르신 행복! 틈새이음



2025년, 우리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양구군 화천군 고령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어르신 행복 틈새이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제도가 이원화된 현실 속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양쪽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고령장애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일상·건강·정서·사회 관계를 돌보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장애어르신 행복 틈새이음'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가정방문 및 지역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장애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틈새 활력 일상서비스

돌봄활동가가 어르신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 식사,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 틈새 건강 주치의 서비스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 상담, 운동 처방, 이동진료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 틈새 마음 배달 서비스

지역 주민이 마음활동가로 참여해 정서적 교류와 관계망 회복, 소규모 모임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고립된 어르신의 삶에 온기를 더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가 중심 돌봄체계입니다.

돌봄활동가와 마음활동가는 대상 어르신과 1:1 매칭되어 생활을 나누고,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돌봄활동가·마음활동가의 따뜻한 손길은 고령 장애인 어르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고 있으며, '장애어르신 행복 틈새이음'은 지역사회의 '연결'이라는 해답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돌봄활동가

### 다케우치 다카에님 이야기

“저는 친정에서 할머니를 함께 돌보았던 경험을 통해 홀로 계신 장애 어르신들이 느끼실 고독과 불편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바람으로 돌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방문하는 어르신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동안 외부 활동이 쉽지 않으셨다고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 장애인 한마당과 어버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며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어르신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 마음활동가

### 이영승님의 이야기

아직 시작 단계라 다소 조심스럽고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 볼 때마다 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사회적 연결'이아말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의 반대말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채워짐'이다"라는 말처럼, 저희의 작은 대화와 관심, 공감미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채움을 드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일대일 만남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세상 구경도 하고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by. 조영미 사회복지사



## 4~6월 다시보기

## 7~9월 다시보기



### 평창장애인인권영화제

4월, 평창시네마에서 2025년 평창 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공감의 힘, 다름의 이해”를 주제로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를 함께 상영한 후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2차 생애설계실천 모니터링

생애주기지원사업을 진행하여 2차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실천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으로 가정에서 실천한 것, 긍정의 변화, 실천의 어려움,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었던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삼척과 강릉 일대에서 진행된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춘천해남대학, 철원해남평생대학, 속초해남평생대학에서 다양한 종목에 참가하여 농구팀 우승을 비롯하여 볼링, 풋살, 싸이클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기록하였습니다.

### 확대사례회의

본관, 평창분관, 속초분관, 철원분관의 사례 관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확대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자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 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25년 제 11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체조대회 장애인부 1위!

해남미래대학 댄스팀이 인제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1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체조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부 1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첫 장애·비장애 통합 대회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댄스팀은 꾸준한 연습으로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바둑대회

도내 바둑을 사랑하는 장애인 바둑애호 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24 강원특별 자치도장애인바둑 대회가 7월24일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승부를 떠나 바둑을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 THE좋은세상만들기 선정위원회

중증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및 편의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THE 좋은세상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스마트홈 구축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사전답사 후 진행되는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5년 양구/화천 지역 장애인복지포럼

양구&화천지역에서 지역사회중심지원사업 (CBSS)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구군/화천군 지역사회중심지원센터 성과와 향후 방안모색」을 주제로 장애인복지포럼을 진행합니다. 직접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유관기관 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지난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역사회중심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 보호자비전워크숍

생애주기지원사업을 맞춤형 개별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한 자리에 모여 보호자 비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미래 모습을 통해 현재 자녀가 성장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발달과업 완수를 위해 우리가 지원해야하는 일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자녀의 생애 설계를 수립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교육

도내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람중심실천 (PCP)이해와 활용, 업무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생성형 AI,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성과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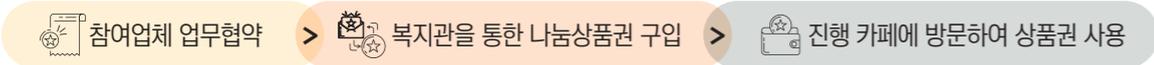
# 후원자님의 나눔이,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꿈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장애인의 꿈 #함께해DREAM

우리복지관에서는 4월~6월, 지역 내 장애인의 꿈지원금 마련을 위한 나눔카페를 진행하였습니다. 춘천시내 카페 디워드, 국립춘천박물관과 뮤지엄카페, 카페온유와 고성시내 DMZ박물관 뮤지엄 카페의 참여로 진행된 2025 나눔 카페는 3,000만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 ♡나눔카페 진행 절차



나눔상품권은 구입 후 현금처럼 참여업체에서 음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나눔카페 참여업체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재료비, 인건비 없이 상품권으로 구입한 음료 판매금액 전액을 기부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나눔카페 운영기간동안 복지관을 통해 나눔상품권을 구입한 후원자님들은 착한 소비를 통해 장애인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에 참여해주셨습니다.

1,300여명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2025년 목표한 3,000만원이라는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주시는 마음은 도내 장애인의 꿈을 찾고, 꿈을 실현하는 과정의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모든 분들과, 참여업체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 4~6월 신규 후원자

김영희,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장호근, 이정호, 박현애, 지정민(농업회사법인산천애아삭소리사과애플즙주식회사), 이은수, 체인지메이커스, 박기균, 최교성, 김도영, 심상익, 고도이, 윤애정, 미담인테리어

### 4~6월 자원활동가

김보현, 김기근, 이선주, 우명화, 김행자, 이연주, 진장철, 전미정, 이주영, 염태집, 전우영, 정민주, 박규천, 오승원, 한예빈, 양정미, 김형중, 홍채빈, 정금복, 박금선, 김서영, 유수림, 김 솔, 정재국, 김은희, 김시연, 김수연, 김영미, 김채현, 윤수현, 권효신, 김하원, 김민선, 김경숙, 박수현, 김정빈, 이명주, 성은채, 오민주, 정우열, 신지혜, 유하연, 박제양, 유한별, 이유진, 김우빈, 이서연, 박주연, 진찬영, 이주원, 윤해인, 조윤서, 조 윤, 이장군, 함승수, 최찬선, 이시연, 김은채, 한희선, 진미경, 서한솔, 홍민지, 나정훈, 전민주, 황지영, 최지원, 박성우, 강다은, 김세현, 신희섭, 김규리, 김예원, 박소미, 박아현, 변민서, 이규희



## 신규 나눔가게를 소개합니다!



### 양구 사진관

양구군 내에서 증명사진, 여권사진, 돌사진, 가족사진 등 소중한 추억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양구사진관이 나눔가게로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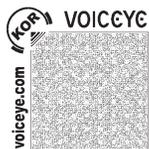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39 2층

### 미담 인테리어

양구 목조, 농가, 조립식, 전원 주택 리모델링 시공 전문업체인 미담인테리어(대표: 박소희)가 나눔가게로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15



사각장애인을 보이스아이 삼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복지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네이버 밴드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

T 033)255-2491 F 033)255-2494 www.rehab.or.kr